

업·계·소·식

제29회 무역의 날 개최

제29회 무역의 날 기념식이 노태우 대통령, 한봉수 상공부장관, 박용학 무역협회 회장을 비롯 수출입유공자, 무역업체대표 정부관계자 등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30일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노태우 대통령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리를 하향 안정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시장정보를 원활히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한봉수 상공부장관은 「우리 수출의 가장 큰 과제가 수출 경쟁력 강화와 선진국에 대한 수출활력의 회복」이라고 강조하고 미·일·EC 등 3대 선진국 수출비중이 작년 56.6%에서 금년 10월 까지 51.2%로 떨어진 것을 만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산업훈장, 산업포상 등 국무총리이상 정부 포상자 140명을 비롯해 상공부장관 표창, 무협회장 표창 150명 등 모두 449명이 포상을 받았으며 328개 업체가 수출의 탑을 받았다.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은 한국전자(대표 : 유원영)에 돌아갔으며 삼성전자는 40억달러 수출탑을 현대중공업은 20억달러 수출탑을 각각 받았다. 이날 기념식에서 수상한 본회 회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산업훈장

△ 금탑

한국전자(주) 대표이사 유원영

△ 철탑

(주) 코리아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고석영

(주) 메디슨 대표이사 이민화

(주) 쌍용 대표이사 김덕환

△ 은탑

(주) 대우부사장 최영상

(주) 삼성전자 이사 김영온

◇ 산업포장

(주) 신우음향 대표이사 이종배

(주) 하이트론시스템 대표이사 길대호

(주) 선경 상무이사 이중삼

◇ 대통령 표창

(주) 우림전자 대표이사 임근배

럭키금성상사(주) 이사 장봉호

삼성전관(주) 이사 장병태

◇ 국무총리 표창

지원산업(주) 대표이사 이현영

동방음향(주) 대표이사 조청동

(주) 화승전자 대표이사 조태현

(주) 성음전자 대표이사 송성장

명코퍼레이션 대표이사 이윤우

효성물산(주)부장 이제근

삼성전기(주)부장 이상신

아남산업(주)부장 전석균

대우전자(주)부장 전용춘

(주) 하이트론시스템 계장 정시환

◇ 상공부장관 표창

(주) 기쁜 대표이사 주일성

자화전자(주) 대표이사 김상면

한국몰렉스(주) 대표이사 정율택

(주) 비티씨코리아 대표이사 신영현

한국통신(주) 대표이사 방희석

업·계·소·식

(주) 풍	산	대표이사	조태숙
(주) 대성하이테크전자	대표이사	정현대	
(주) 우림전자	부	장	김봉술
(주) 카스	연구원	백성희	
(주) 신우음향	주	임	유병석
금성산전(주)	부	장	고명식
해태상사(주)	차	장	홍은식
현대종합상사(주)	과	장	김시희
(주) 쌍룡부	장	이승현	
한국전자공업진흥회	부	장	최영훈
Inkel Corp	대	표	조영구
삼성전자(주)	연	구원	김경제
대덕산업(주)	사	원	이병오

◇ 한국부역협회 회장 표창

(주) 페시픽와기그전자	대표이사	조용호
태석정밀(주)	대표이사	현병국
한국전자(주)	부	장 박노수
금성계전(주)	부	장 박동원
(주) 오토틱닉스	주	임 김진실
광전자반도체(주)	대	리 문성대
삼성항공산업(주)	이	사 안동삼
(주) 성음전자	부	장 황만수
(주) 화승전자	이	사 이의행
동방음향(주)	과	장 유병석
지원산업(주)	파	장 정의성
금성통신(주)	사	원 김태식
(주) 한양전자콘트롤	이	사 김문기

◇ 수출의 탑

**電子渡시험기술
研究所 발족**

민간주도의 전자파장애(EMI) 검증업무대행기관인 전자파기술연구소(대표 黃英菊)가 최근 발족됐다.

그동안 국가검사기관에 의뢰해오던 전자파장애검증업무가 만성적인 적체로 과다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상 불편이 초래되고 있음을 절감해오던 국내 컴퓨터관련업체들이 최근 수차례의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끝내고 지난 27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 40억불탑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강진구

△ 1억불탑

금성통신(주) 대표이사 백중영

△ 5천만불탑

(주) 코리아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고석영
(주) 화승전자 대표이사 조태현

△ 1천만불탑

내외반도체(주) 대표이사 정창훈
(주) 하이트론시스템 대표이사 길대호
한국몰렉스(주) 대표이사 정율택
(주) 우림전자 대표이사 임근배
(주) 매디슨 대표이사 이민화
동방음향(주) 대표이사 조청동
(주) 카스 대표이사 김동진

△ 5백만불탑

자화전자(주) 대표이사 김상면
한국통신(주) 대표이사 방의석
(주) 삼경정밀 대표이사 정강환
풍전산업(주) 대표이사 주상개
삼주전기(주) 대표이사 임정체

△ 1백만불탑

(주) 비티씨코리아 대표이사 신영현
(주) 동아전자 기 대표이사 이건수
(주) 한양전자콘트롤 대표이사 이기정
(주) 오토틱닉스 대표이사 박환기

업·계·소·식



한국전자파시험기술연구소의 자본금은 8억원으로 내외반도체·뉴텍코리아·제일정밀·한국기술연구소 등 7개업체와 3명의 개인주주 등이 공동으로 일정지분을 출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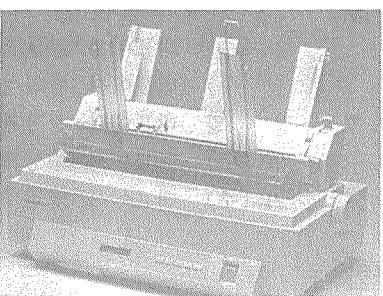
한국전자파시험기술연구소는 경기 이천에 마련한 1천평의 대지위에 전립될 예정으로 내년 1월까지 약 5억원을 투입, 각종 첨단시험시설의 설치가 끝나는 상반기중 본격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전자파시험기술연구분야에서 민간주도의 새장을 열게된 한국전자파기술연구소는 현재 전자파 검사업무가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향후 국가검사기관의 검사대행업무 등 공식인증 기관으로서의 기능강화 및 자립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성사·삼성전자·대우전자 등 가전3사를 비롯, 한국컴퓨터·신도리코·코리아제록스 등의 대기업들도 연구소에 대한 자본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부터 전자파 시험연구분야에 대한 민간참여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내 최고속 도프프린터 시판

(주) 금성사



金星社(대표 李憲祖)가 국내에서 인쇄속도가 가장 빠른 초고속 프린터를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

「PRT-7950」으로 명명된 이 제품은 프린터를 초고속 모드로 설정할 경우 최고 850CPS(영문기준)로 종전 최고이던 500CPS에 비해 70% 이상 인쇄속도가 빨라졌다.

이 제품은 또 프린터 헤드전용 냉각펜을 부착, 고속인쇄의 문제점으로 여겨지던 고열발생이나 인쇄불량, 기기손상 등을 해결했고 전면부에 16자×2줄의 액정표시 다기능컨트롤패널을 장착, 인쇄속도나 급지방법 문자간격 및 글자체 서식번호 등의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320 MHz 무선호출장비

국산화

금성통신(주)

金星통신(대표 白重英)은 25일 세계 최대 무선호출(삐삐) 공급업체인 캐나다의 글레네어社와 제휴해 320MHz대의 무선호출장비를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금성통신이 이번에 국산화한 이 제품은 세계 표준의 네트워크 방식을 채택, 국내는 물론 국제 무선호출서비스까지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특히 전송속도가 2,400bps로 기존의 제품보다 2배 이상 빨라 다량의 정보전송과 대규모 가입자에 대한 동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더구나 가입자의 규모에 따라 회선을 대·중·소로 나눠 장비를 제공할 수 있어 높은 경제성도 갖추고 있다.

업·개·소·식

프레온 대체 무공해 세척기 개발 금성산전 (주)

金星產電(대표 : 李喜鍾)은 최근 PC-NOIL, PC-ECO NOIL, PF-ECO LIQUID 등 3가지 무공해 용제를 세정제 및 건조제로 사용한 고기능세척기(제품명 : QUICK DRY SYSTEM)를 개발하고 양산체제에 들어갔다.

동제품은 증발점열이 현저히 낮은 PF-ECO LIQUID를 건조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완전건조가 가능하며 인화 및 폭발 위험성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 그리고 건조를 위한 설치면적의 축소, 폐액 활용에 따른 세정제 절감 및 폐수처리설비가 필요없어 기존 세척기에 비해 투자가 적게들어 훨씬 경제적이다. 이외에도 세제인 PC-ECO NOIL 및 PF-ECO LIQUID는 방청성이 있어 세척물의 녹 발생을 완전방지하였다.

팩시밀리 對中國 수출 활기 대우통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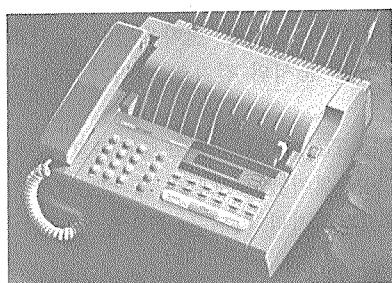
大宇通信(대표 : 朴成圭)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중국 中央郵電部 \$(MPT : Ministry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의 승인을 얻어 中國郵電總公司(PTIC : China National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orporation) 산하에 있는 홍안통신과 화평통신 등에 1만5천대, 금액 기준 약 700만달러 가량의 팩시밀리를 수출한다.

대우통신에 따르면 이번 수출은 올 7월에 300여대의 샘플을 출하해 최근 현지 샘플 검사에 합격함에 따라 중국 우전부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는데, 올 연말까지 3천대를 선적하고 내년 3월까지 나머지 물량을 선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광서성과 베이징에 소재한 홍안통신과 중국우전총공사 산하의 자회사로서 자체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통신기기 전문 제조업체이다.

한편 대우통신이 이번에 선적하는 물량은 전량 중국정부기관과 일반회사 등에 공급할 것이라고 중국우전공사측은 밝히고 있는데, 현재 중국우전부는 시장 개방에 앞서 통신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우전부의 승인 품목을 우선적으로 수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우통신은 추가 수요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트북 신기종 프로-라이트 시판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 朴成圭)은 LCD 화면과 외부모니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PC 프로-라이트 신기종을 개발 완료하고 11월 5일부터 시판에 들어갔다.

모델명 CPC-9563V인 이 노트북은 A4 크기의 초소형, 초경량 설

업·계·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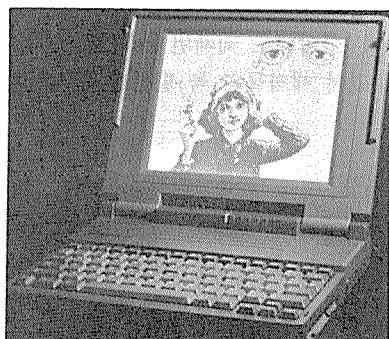
계로, 노트북 PC가 휴대용 PC로서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형은 소형화, 경량화를 추구하면서 화면은 기존 8"보다 대형화된 10"를 채용 유저들의 사용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대우통신이 Notebook 시장의 저변 확대를 위해 보급형으로 출시한 이 제품은 최신 LCD 제어용 반도체인 "Vamp Chip"을 채택하여 외부 모니터를 사용할 때 LCD 화면과 VGA 컬러모니터 화면을 동시에 Display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휴대용 PC의 Battery 절약을 위하여 Setup 상태에서 일정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System Holding 상태에서 CPU, 비디오, HDD, FDD 등의 전원의 부분적으로 차단되어 배터리를 절약할 수 있는 "Sleep Mode" 기능과 System 동작을 최소화 시키는 "Stand By" 기능이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386SX 컴퓨터중 가장 빠른 25MHz의 속도를 자랑하는 CPC-9563V는 300/1200/2400 BPS가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데이터 "모뎀"이 기본 장착되어 있고, 외부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의 소모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장치가 있는 CPC-9563V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을 위해 RAM 상에서 8MB까지 확장할 수 있다.



전화국 전산화 시스템 KT에 공급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대표 金鍾吉)은 최근 한국통신이 제주사업본부에 구축, 개통한 전화국전산화에 네트워크통합 사무자동화시스템을 공급했다.

삼보가 공급한 이 시스템은 문서없는 사무실에 적합한 문서유통 및 결재 시스템으로 특히 LAN상의 모든 사용자들이 자신이 직접 작성한 문서나 이미지서버, 파일서버의 문서를 전자우편이나 팩스서버를 통해 전송, 결제함으로써 모든 문서의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삼보가 구축한 전체 네트워크는 TCP/IP를 기본프로토콜로 사용하며 네트워크상에는 파일서버 등이 설치됐고 모뎀과 X·25 게이트웨이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에 접속, 원격지의 자원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차세대형 「더블 수퍼 투너」 개발 삼성전기 (주)

三星電機(대표 黃善斗)가 TV · CATV · HDTV 등 모든 TV에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형 투너인 더블 수퍼 투너(Double Super Tuner)의 개발에 성공했다.

三星電機가 지난 90년부터 4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입 자체기술

업·계·소·식

로 개발한 이 제품은 기존 TV용 투너의 장점과 CATV용 투너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대형 고화질TV·HDTV·초광대역 다채널(125ch) CATV 컨버터에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日本업체도 개발 단계에 있는 차세대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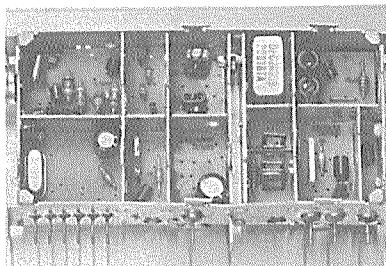
이 제품은 TV와 CATV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기존 제품의 문제점인 인접 채널간 간섭현상을 근본적으로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입력신호 변화에 따른 성능저하의 방지는 물론 트래킹 에러가 전혀 없어 조립시 무조정화가 가능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三星電機가 개발한 제품은 日本 마쓰시타(松下)가試개발한 62cc급보다 소형화된 56cc급의 세계 최소형품으로, 기능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돼 그동안 대형TV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던 국내 가전업체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三星電機는 이 제품의 원천기술 보호를 위해 국내특허 41건 세계 특허 3건을 출원해 국내 6건 세계 2건의 특허를 이미 획득함으로써, 타업체가 三星電機의 설계기술을 사용할 경우 특허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三星電機는 이 제품을 현재 시생산중에 있으며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인데, 국내업체는 물론 美洲·유럽 등지의 유명 전자업체로부터 벌써 주문을 받아놓고 있다.

튜너의 세계시장은 올해 1억2천만개 수준에서 오는 95년에는 1억5천만개까지 6% 이상 신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모든 TV업체가 앞으로 3~4년내에 더블 수퍼 투너를 채택할 전망이어서 三星電機는 이 제품을 미래상품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캠코더 미그 헤드 국산화 삼성전기 (주)

三星電機(대표 黃善斗)가 11일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오던 8mm 캠코더용 미그헤드를 국산화, 본격양산에 들어갔다.

VCR테이프에 접촉해 영상신호를 기록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헤드는 현재 일반적으로 단결정 페라이트를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데 미그헤드는 단결정 페라이트의 틈새에 특수한 금속박막을 입혀 전자기적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이다.

三星電機가 三星종합기술원으로부터 사업을 이관받아 작년초부터 30억원을 투입, 상품화에 성공한 이 미그헤드는 일반헤드에 비해 화면재생력이 높아 고화질을 요구하는 8mm 캠코더에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생산이 안돼 지금까지 일본의 소니 알프스 등이 독점공급 해왔다.

업·계·소·식

반도체 조립장비

개발

아남산업 (주)

아남산업(회장 金柱津)은 매트릭스 SO(Small Outline) IC패키지의 제작과정에서 몰딩 후 리드프레임을 잘라내거나 다듬는 後공정 작업을 완전자동화해 생산성을 높인 반도체조립장비인 「매트릭스 SOIC28LD 폴리 오토트림 시스템」을 개발했다.

몰딩된 자재를 제품으로 완성하는 후공정(back-end) 장비인 이 시스템은 리드프레임 등 자재가 담겨진 박스인 매거진(Magazine)을 교체하는데 따른 시간손실을 줄이기위해 온/오프 로드부에 여러개의 매트릭스를 처리할 수 있는 멀티 스톡 매거진구조를 채택했으며 가동중에도 트림(Trim)된 자재를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검사공정을 설치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컴팩트한 모듈타입으로 설계, 정비가 쉽고 SOIC 매트릭스의 적용할 수 있는 자재의 범위를 넓혔으며 유압유닛을 개선, 내구성을 높이고 소음을 줄였다.

이 장비는 특히 민감한 감시장치를 통한 안전장치를 강화해 예리 발생시 작업자와 자재 및 장비의 손상을 방지도록 했다.

인도에 생산관리

시스템 구축

포스데이터 (주)

포스데이터(대표 成耆重)는 최근 인도네시아 국영크라카타우제철(PTKS)의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포스데이터는 8년에 걸친 생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지난 달 자카르타 소재 PTKS 철강빌딩에서 PTKS의 아라위보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데이터 입력과 출력 및 물류흐름에 대한 노니터링 시범을 보였다.

PTKS는 이달중인 인도네시아 주요인사와 각국대사 및 매스컴을 동원해 대대적인 종합가동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포스데이터는 이번 생산공정시스템의 성공을 계기로 PTKS의 2단계 생산공정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인도네시아지역의 신규 프로젝트는 물론 동남아시아지역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PTKS의 정보통신관련 子회사(KIT) 설립에 관여, 8월에 설립마스터플랜을 공급한데 이어 이달중 KIT의 사업방향과 관련된 제2차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제공키로 했다.